

## 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 입법 예고

##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 신기술 분야 대학원 정원 확대

대학 관리지원 전략 후속조치  
교원확보율 충족시 증원 허용  
'모집정원유보제' 근거 마련

인공지능(AI)이나 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 대학원 정원이 현재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대학(원)이 일정 기간 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대학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의 후속 조치다.

우선 대학원 첨단분야 정원 증원이 촉진된다. 그간 대학원이 학생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했다. 앞



지난 5월 20일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뉴시스

으로는 고급·전문인재 수요가 많은 첨단 분야에 대한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증원이 허용된다.

대학 학부 과정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결원 및 여석을 활용한 첨단학과 신설제도가 대학원에도 도입될 정원이 확대될 여지가 커졌다. 학부의 경우 이 제도에 따라 올해 4761명의 정원이 생겼고, 2022학년도엔 2003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캠퍼스 이전 시 분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 충족해야 했으나,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에 대해서만 교지 확보율을 충족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등 인근 캠퍼스에 신산업분야 학과 이전을 용이하게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의 정원이 학령인구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제

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정원을 감축했다가, 다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정원 증감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후 다시 모집할 수 있도록 '모집정원유보제'의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모집정원유보제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고시로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우선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향후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해 대학이 학내 발전계획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2020년8월)에 따라 첨단분야에 한해 허용한 '석사 2명 감축 → 박사 1명 증원' 기준을 모든 분야에 확대해 인력 수요를 반영

한 인재양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이전 연도 대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전 연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자체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첨단분야는 이런 기준뿐만 아니라 교원확보율 90% 이상만 충족해도 허용기로 했다.

그간 국제유학생 유치, 평생학습 확대 등을 위해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나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었지만, 전담학과 신설이 불가능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들을 위한 전담학과 신설을 허용해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서울시 “노인 복지사업 5년간 1.4兆 투입”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  
일자리 등 4개 분야 29개 과제 추진

서울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관내 65세 인구(7월 기준)는 157만3000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 955만8000명의 16.5%를 차지한다. 시는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186만2000명(19.9%)에 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시는 향후 5년간 1조4433억원을 투입해 일자리·돌봄·여가·건강 4개 분야에서 29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시는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공·민간 일자

리 10만개를 발굴하고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시니어 인턴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5년까지 어르신 310명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줄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치매 인구 증가에 대비해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를 현재 18곳에서 2025년까지 26곳으로 늘려 집 주변에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안전을 24시간 책임지는 안전관리 솔루션 지원 대상을 종전 1만2500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늘린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사회참여 활

성을 위한 복합공간인 ‘서울시 어르신 플라자’를 2025년까지 건립한다. 스마트폰 등 생활 속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38개 경로당에 설치한 무료 와이파이를 750개소로 확대한다.

고령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쓴다. 향후 5년 동안 어르신 수요가 높은 공공 요양시설 7곳을 추가 확충하고, 장애인·여성 우선 주차공간 같은 ‘어르신 우선 주차공간’을 공공시설에 신설한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시니어파크’도 조성한다. 신체기능이 쇠약한 어르신에게 맞는 전용 운동 기구를 갖춘 공간인 시니어파크는 20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hjk1@

## 취약계층 학부모 사립유치원 학비지원 확대

서울시교육청 월 최대 33만5000원

서울에서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저소득층 학부모들은 오는 10월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추가적인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월 10만원만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월 최대 33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취약계층 학비 지원 확대 사업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서울은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기본경비를 포함한 학부모부담금이 전국 평균 대비 1.6배 높다. 그럼에도 공립유치원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은 총 493개로 전체의 64.4%를 차지한다. 반면, 공립유치원

은 273개로 전체의 35.6%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10월 1일부터 종전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 지원금인 월 10만원에서 월 23만5000원을 추가해 최대 33만5000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확대 규모는 지난 7월 추경을 통해 확보한 금액 중 2억3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학비 지원액은 총 6억9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법정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이 다.

특히, 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 대상 유아도 지원 확대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기존 지원금 월 16만4000원에서 월 17만원을 추가해 최대 33만4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인하대 정호상 교수 연구실, LG ‘타깃랩’ 선정

물류분야 특화 연구실 선정 이례적

인하대학교는 정호상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실(SCOA Lab.)이 물류 분야로는 이례적으로 LG전자 ‘타깃랩’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공과대학 교수의 연구실이 아닌 물류 분야에 특화된 연구실이 LG전자 타깃랩에 선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LG전자는 자사 제품 및 프로세스 등에 적용 가능한 핵심연구를 진행하는 대학 연구실을 선별해 타깃랩으로 선정하고 있다. 타깃랩으로 선정된 연구실에서 학위를 취득한 대학원생은 LG전자 입사 희망 시 특별채용과정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입사기회를 부여받게 되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정호상 교수(앞줄 가운데)와 연구원들이 LG전자 타깃랩 선정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면 입사 전까지 산학장학생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정호상 교수가 이끄는 SCOA(Supply Chain Optimization&Analysis) 연구실은 물류프로세스 분석 및 최적화 등과 관련해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다. /이현진 기자

강성영 한신대 8대 총장  
기장 총회 만장일치 인준

“한신대 8대 총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 님께서 세우신 한신대가 기장의 자라이 되고 한국 사회의 존경을 받는 대학이 되도록 ‘다시 새롭게’ 혁신의 노력을 하겠다.”

한국기독교총회장(기장) 제106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강성영 총장(사진)이 “총대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처럼 소감을 밝혔다.

기장 총회는 지난 29일 오전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강성영 한신대 총장서리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현진 기자

## 중앙대 차세대 지능형 광 뉴로모픽 회로 개발

박성규 중앙대 교수 연구팀 성과

박성규 중앙대 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AI) 컴퓨터와 인공시각장치 등 차세대 전자시스템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앙대학교는 박성규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연구책임자, 권성민 박사과정 학생이 제1저자, 광지영 학부연구생이 제2저자를 맡은 연구팀이 ‘차세대 지능형 광 뉴로모픽 인공시각 장치 및 컴퓨팅 회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성규 교수 연구팀은 첨단 소재와 적층 소자를 이용한 회로의 모놀리식

설계를 통해 여러 파장의 빛을 매개로 인간의 신경 전달 방식을 모방한 컴퓨터 장치와 회로 어레이를 구현했다. 이를 머신러닝 기술과 융합해 시각 패턴 인식 훈련에 적용할 수 있는 대면적 광 뉴로모픽 인공시각 장치 및 컴퓨팅 회로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에 개발된 광 뉴로모픽 장치 기술로는 산업적인 활용성이 제한된 제조공정의 한계 때문에 광 뉴로모픽 컴퓨터 장치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박성규 교수 연구팀이 이번 거둔 연구성과는 이러한 한계들을 넘어서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현진 기자